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처리 요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 ◆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경과

- 감사기간 : 2018. 10. 19(금) ~ 10. 26(금) 《8일간 : 토·일요일 포함》
- 대상기관
 - 군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
- 감사위원회의 편성
 - 위 원 장 : 전수일 의원
 - 간 사 : 박찬원 의원
 - 위 원 : 이주웅의원, 지광천의원, 심현정의원, 이명순의원
 - 감사지원 :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

3 감사일정·대상기관·장소

일 시	감사 대상기관(부서)	감사장소	비 고
10.19(금) 10:00~ 감사종료시	▶ 기획감사실, 올림픽시설과, 경제체육과 시설관리과	의 회 소회의실 (3층)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20(토)	공 휴 일		
10.21(일)	공 휴 일		
10.22(월) 10:00~ 감사종료시	▶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의 회 소회의실 (3층)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23(화) 10:00~ 감사종료시	▶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	“
10.24(수) 10:00~ 감사종료시	▶ 재무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	“
10.25(목) 10:00~ 감사종료시	▶ 진료지원과, 보건사업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	“
10.26(금) 10:00~ 감사종료시	▶ 강평	“	강평

4 결과 및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괄 : 61건 【별첨1】
- 시정요구사항 세부내역 : 24건 【별첨2】
- 처리요구사항 세부내역 : 37건 【별첨3】

별첨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총괄)

(단위:건)

부 서 명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비 고
합 계	61	24	37	
기 획 감 사 실	10	4	6	
문 화 관 광 과	3	2	1	
주민생활지원과	4	0	4	
종 합 민 원 과	0	0	0	
자 치 행 정 과	5	1	4	
재 무 과	3	2	1	
경 제 체 육 과	5	3	2	
환 경 위 생 과	2	0	2	
산 림 과	7	3	4	
안 전 건 설 과	4	1	3	
도 시 주 택 과	4	1	3	
올림픽기념사업단	2	2	0	
올림픽시설과	1	0	1	
시 설 관 리 과	1	0	1	
보 건 사 업 과	3	3	0	
진 료 지 원 과	1	1	0	
농 축 산 과	1	0	1	+1
기 술 지 원 과	4	1	3	
상하수도사업소	1	0	1	

1. 행정사무감사 수감측면(기획감사실)

-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수감에 있어서는 성실한 자세와 자료제출에 응하는 것이 대의기관에 대한 기본예의이나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제출자료 불충분, 통계 불일치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출석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추진 (기획감사실)

- 우리군 인구정책을 보면 통상적인 단순시책으로서 성과면에서 미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임.
- 인구정책에는 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의료체계 개선, 기업유치, 교육여건 개선 등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과 원주민과의 동질감을 갖기 위한 환경 조성, 귀농·귀촌자 센터설립, 주거비 지급, 다자녀 혜택 확대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3.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 (기획감사실)

- 2018년 10월 현재 67개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연중 1회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2017년 8개, 2018년 16개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므로 불필요한 위원회 및 협의회를 정비하기 바람.
- 위원회의 의안심사가 서면심사가 많은 부분은 의안 제출자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져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통해 의안심사를 하기바람.

4. 지방교부세 페널티 방지대책 마련(기획감사실)

- 2017년도 세출부분 페널티는 81백만원인데 비해 2018년도는 31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성과없는 예산낭비 축제행사 지양 (문화관광과)

- 대관령 숲을 무대로 여름축제를 상품화 하고자 한 “숲속 뮤직&힐링 페스티벌 사업”과 올림픽을 통해 부각된 “평화”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추진한 “평창 평화영화제”는 행사의 목적과는 달리 홍보효과가 미흡하고 사전 준비도 부족하여 주민의 참여도 매우 저조한 등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임.
- 사전 우리군과 협의되지 않고 준비성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는 과감히 지양하기 바람.

6. 시티투어사업 추진 철저 (문화관광과)

- '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사업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탑승율이 8.9명으로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이외에도 상품개발,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지역관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 운행버스도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통근버스 등 직원 복리후생 개선대책 마련 (자치행정과)

- '18년 4월부터 시행한 직원통근버스 운영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법인 회원콘도 이용율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년도에 직원 통근버스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계획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회원콘도도 많은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8. 공공요금 절약방안 마련 (재무과)

- 우리군 공공시설의 전기요금이 연간 30억원 가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자들의 작은 관심으로 절약이 가능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9. 고액채납자에 징수대책 마련 (재무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채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고질적인 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채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고액 채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징수에 노력하기 바람.

10.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정상화방안 및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 (경제체육과)

- 우리군의 한약재 경쟁력 강화와 지역 약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한방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종 소송과, 세금 체납 등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찾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약재 유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참여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기 바람.

11. 농공단지 지원방안 마련 (경제체육과)

-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의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농공 단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입주업체가 타 자치단체 이전계획을 세우는 등 농공단지 지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요소를 사전 방지하기 바람.

12. 방립 농공단지 폐수처리 대책 (경제체육과)

- 방립 농공단지는 배추절입시설 등 다량의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폐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염수 처리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처리사례 등 신중한 검토로 배출수의 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자에게는 원인자 부담 등 폐수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13. 산양삼 지원사업 추진 철저 (산림과)

-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 이후 산양삼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울타리 설치를 위한 예산 6억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기반시설 지원은 가능하겠으나 타 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 인력지원 사업 등은 지양하기 바람.

14. 자연휴양림 운영 철저 (산림과)

- 자연휴양림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자에게 체험,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영 형태를 보면 저가의 숙박시설로만 운영되어 인근 펜션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므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자연휴양림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나무은행 관리 철저 (산림과)

-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나무은행이 전문성 부족으로 병해충으로 고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나무은행 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더 이상의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16. 농업용 대형관정사업 확대 (안전건설과)

- 금년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많은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농업용 대형관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 대형관정은 이용에 있어 특정인만 이용하여 주민 간 갈등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희망택시 이용방법 홍보철저 (도시주택과)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희망택시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 이용자가 대부분 노약자 등 취약계층으로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동승하는 경우 탑승인원 모두가 쿠폰을 지급하는 등 인식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불방법 등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택시운송업자와 이용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불합리하게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8.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일한 대처(올림픽기념사업단)

-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동안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한 호스트 시티인 평창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나,

- '18.9.11일 관계자 회의 시 개최장소를 이미 결정하여 통보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 등 대처할 수 있는 기관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바람.

19. 평창평화포럼 및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철저 (올림픽기념사업단)

- 민선7기 공약사항 중 다보스규모의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평창평화포럼”과 레거시사업인 “평창평화특례시”사업이 중복과 기득권 문제 등으로 정부와 강원도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전혀 진척이 없음.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향후 직면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 보건의료원 구조적 문제해결(보건사업과)

-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평창군민을 위해 운영하는 평창보건의료원이 주민의 접근성 제고와 보건 인프라 개선 등을 목적을 가지고 2018년 12월 새로운 신축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 보건의료원 이전에 따라 깨끗한 진료환경에서 유능한 의료진에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당장 2019년 4월 이후에는 내과 공중보건의 수급이 불가능하고 입원실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충원이 필요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조직의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21. (구)보건의료원 활용방안 관련 (보건사업과)

- (구)보건의료원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관내 부족한 노인요양 시설 확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리모델링 과다사업비 소요, 건물 구조상 문제, 노인요양보호사 채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사업추진과 부서 간 업무 회피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됨.
- 반드시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당초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2.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철저 (보건사업과)

- 의료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10월중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사업비 대비 38%인 63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설계변경 추진하였음.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사항으로 향후 모든 사업추진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소재지인 진부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 또한, 진부보건지소가 폐쇄되어 농촌 취약계층의 진료 불편이 예상되므로 출장진료, 화상진료, 셔틀버스 운행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23.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환경 개선 (진료지원과)

-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감염되지 않도록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근무자의 복장은 의료진임을 알 수 있도록 진료복을 착용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24. 멜론 재배 지원사업 추진 철저 (기술지원과)

- 평창군의 전략적인 대체작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멜론재배 농가가 연작피해 등의 이유로 재배를 포기하였으며, 2015년 군비를 투자하여 지원한 육묘장은 3년이 지나도록 운영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당초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앞으로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1.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적극적 대처(기획감사실)

- 진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그동안 평창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합당하지 않은 군 당국의 까다로운 조건 제시로 성과가 미비함.
- 본 시설은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시설로서 군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전”보다는 “폐쇄”로 추진하고 시설 내 균유지는 대부기간 만료후 대부를 불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해법을 찾기 바람.
- 또한, 의사결정시에는 진부비행장 이전 추진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대처하기 바람.

2.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사업 추진 (기획감사실)

-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은 5대 핵심공약과 21개 이행과제 60개 세부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도 있지만 일부사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음.
- 공약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냉철히 판단,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과감히 포기하여 군정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행정소송 방지대책 마련 (기획감사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음.
-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상호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다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맞는 홍보대책 마련 (기획감사실)

- 군정홍보는 급속한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적 흐름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군 홍보는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중앙매체, TV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선택하기 바라며,
-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유치 등은 광고효과, 관광지 개발 및 비용절감에서 큰 효과가 있으므로 인맥이 있고 능력있는 프로그램 유치담당자를 채용배치를 검토하고,
- 농업, 관광, 군정홍보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홍보를 단일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바람.

5. 지역경제와 연계한 생계형 공모사업 신청(기획감사실)

-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사전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당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의 편익사업 보다는 지역경제와 연계된 생계형 공모사업 중심으로 신청하기 바람.

6.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 (기획감사실)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관련업무 추진과정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정상을 참작한 징계수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7. 탄력적인 축제예산 지원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축제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고, 축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등의 간접지원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 향후 수익구조 문제를 진단해보고 자생력을 갖춘 축제와 갖추지 않은 축제 간 탄력적인 예산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8. 경로당 설치기준 개선 및 운영비 실태파악(주민생활지원과)

-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평균 23.9%이며 경로당 미설치 지역은 인구가 많은 시내권역 또는 설치 기준 미달 지역임.
- 경로당 신축기준을 일률적으로 동당 100㎡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내권역의 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므로 마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고려한 신축 규모를 검토하고,
-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이용에 부담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보훈단체 예우사업 확대 추진 (주민생활지원과)

- 국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지원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나 지원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확대 (주민생활지원과)

- 평창군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평창읍과 진부면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 연중 1만 여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치인력이 평창 1명 진부 2명으로 부족한 실정임. 운영에 맞는 인력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11.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주민생활지원과)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지원계획은 방림면 20억, 평창읍 20억으로 계획하여 평창읍 10억을 제외하고 모두 지원된 상태임.
따라서, 평창읍 잔여분에 대하여는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대체사업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자치행정과)

- 평창군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타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성적 기준도 높은(백분율 90점이상)수준으로 지역 학생들이 평창장학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타 장학금의 수혜정도, 경제적인 생활수준, 성적기준의 조정 등으로 지역의 많은 대학생들이 평창장학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3. 공무원 조직 활성화 방안마련(자치행정과)

- 공무원 승진에 있어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귀농·귀촌 분리, 문화재관리 부서 신설, 도서관 업무 이관 등은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14. 방범용 CCTV설치 확대 (자치행정과)

- 우리군의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나는 등 농촌 지역 범죄에 취약한 상황임. 범죄예방을 위해 최소한 마을 진입로에는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마련(자치행정과)

-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마을별 맡기를 꺼려하는 봉사자로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참여와 조직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원활한 조직운영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타 단체와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바람.

16. 지역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재무과)

- 매년 지역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을 최대한 지역 업체가 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대형 공사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에게 고르게 배분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선대책 마련 (경제체육과)

-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새로운 대출이 불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임.
- 기존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18.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주민갈등 해소대책 마련(경제체육과)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비효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민선7기 공약사항중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적극 유치가 현 상황에서 주민반대로 인해 사회적 갈등 구조로 확산되고 있는 바, 명확한 입장정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구조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울치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사업자와 보상대상자의 약속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교역할 하기 바람.

19.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환경위생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부터 반경 2km이내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 지역(평창읍 노론리 일부)에 해당되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대체사업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방안 검토(환경위생과)

- 한강시원지인 우통수를 알리고 한강시원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2015년부터 개관하여 운영중인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1일평균 관람객이 10명 내외로 저조한 실정이며,
- 관장을 제외한 근무인력 4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2억원 가량 소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오대산 월정사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관광자원 성향이 강한 시설이므로 관리·운영의 주체를 재검토하기 바람

21. 명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철저 (산림과)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택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명품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산촌생태마을 운영 철저 (산림과)

- 우리군에 조성된 7개소의 산촌생태마을 중 3개 마을이 미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4개 마을 중에도 일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예산 투자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 정상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3. 효율적인 균유림 사용허가 추진 (산림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균유림 면적의 10%가량을 대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균유림 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24.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추진 확대 (산림과)

-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작업 이외에도 피해목 제거 등의 민원도 처리하여 성과가 좋은 사업이며,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므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5. 도로제설 추진 (안전건설과)

- 최근 이상 기온 등으로 기상 예측이 어려우므로 적기에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도로에는 소형 장비를 이용한 제설을 추진하기 바람.

26. 효과적인 하천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추진 (안전건설과)

- 농경지 토사유출과 농업 퇴적물로 인한 수목생육 환경이 조성되어 하천바닥에 수목과 잡초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집중 호우시 재해발생이 원인이 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하천 지장물 제거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제거 시 뿌리까지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완전히 일소하기 바람.

27. 홍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철저(안전건설과)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27억원 규모로 추진중인 홍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18년 3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진행중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홍정계곡, 팔석정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관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28.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조정 (도시주택과)

-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만큼 지역의 취약계층의 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도시주택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등 현실적인 해결 대책 마련이 어려움.
- 일몰제 시행 전 토지보상과 시급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0.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효율적인 운영 (도시주택과)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운영으로 인해 주변 상가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올림픽시설부서 폐지로 인한 대책마련 (올림픽시설과)

- 대회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된 올림픽시설과가 폐지되어 그동안 추진된 경관사업 등 각종시설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하자책임과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부서에서 추진된 모든 사업이 업무이관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2.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철저 (시설관리과)

- 읍·면별로 궁도장, 체육공원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어 시설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용이 없는 체육시설 등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이용에 효율을 기하기 바람.
- 체육시설 별 시설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설치자가 책임지더라도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3.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농축산과)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절임배추 시설지원, 우수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의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지원대상자의 농업경영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 보조사업 이후에는 보조 조건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소규모 개인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기술지원과)

-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많은 예산의 투자로 다양한 농기계가 도입되어 운영중인 만큼,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 농기계별 사용빈도를 확인하여 적정 농기계를 구입 비치하고, 운영도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목적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5. 귀농·귀촌사업 추진 철저 (기술지원과)

- 평창군의 인구정책과 맞물려 귀농·귀촌인들을 우리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귀농인들로 구성된 농업단체나 협의회 구성, 사전 정착교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6. 오미자 판로개척을 통한 생산자 소득향상기여 (기술지원과)

- 대체작목으로 집중 육성한 오미자 재배농가가 늘어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판로가 없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판로개척은 물론 간이가공시설 지원 등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7. 무인시스템 정수장 안전관리 철저 (상하수도사업소)

- 최근 정수장 근무형태가 무인시스템을 선호하는 추세로, 안전장치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식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